

교환학생 수학보고서

1. 기본정보

학과		이름	최*주
파견국가	Sweden	파견도시	Orebro
파견대학	Orebro University	파견기간	

2. 파견대학 및 수업 전반 사항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i>파견대학 위치, 규모 및 시설,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i></p> <p>Orebro University 는 스웨덴 수도인 스톡홀름에서 버스나 기차로 2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Orebro라는 도시에 있는 학교입니다. 음대, 의대, 비즈니스, 인문대, 공대 건물이 나뉘어져 있고, 그룹과제를 할때마다 모이는 건물이 따로 있습니다.</p> <p>수업 시작 1주전쯤에 수업교재를 확인하고 미리 예약해서 빌려가세요. 전날에 하면 예약이 많이 밀려있습니다.. 학교 계정을 만들고 도서관으로 로그인 하면 미리 예약할 수 있으니 수업교재는 미리 체크하세요! 교재값이 꽤 비싼데 수업 한달 후엔 쓸 일이 없어 빌려쓰는게 좋습니다.</p> <p>스웨덴은 한국처럼 산을 깎아만든 지형이 아니어서 한국학교와는 비교하기가 조금 힘든데, 전체적으로 높은건물이 없고, 길고 넓게 배열된 건물이 대부분입니다.</p> <p>교내에 파스타집, 인도커리, 케밥집, 편의점이 하나씩 있습니다. 편의점은 9시인가 10시에 닫았던걸로 기억합니다. 또 주말마다 여는 클럽이 교내에 있습니다.</p> <p>Orebro 시내에 차이나 마트가 있어서 한식재료는 그쪽에서 구하고, 그 외에 필요한 물품이나 식료품은 걸어서 15~20분정도 거리에 이카나 윌리스 라는 마트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카가 밤 11시 45분까지 해서 이카로 자주 다녔습니다.</p>

2016-2학기 수업	<p><i>본인이 수강한 과목, 각 과목에 대한 평가를 적어주세요.</i></p> <p>Business management</p> <p>내용은 한국에서 배운 일반 경영학이랑 비슷했습니다. 조별과제랑 세미나, 개인 시험으로 성적을 평가합니다. 제일 무난한 과목이고 익숙한 과목이라 그나마 편한 수업이었습니다. 시험문제는 주관식으로 책에있는 예시문제에서 전부 나오니 예시문제들을 한번씩 풀어보시면 좋습니다.</p> <p>Gender equality and Nordic welfare</p> <p>개인과제와 수업 중에는 조별토론이나 기관을 방문해서 강연을 듣는데, 제가 들었던 4개 수업 중 제일 편한 수업이었습니다. 시험이 없으니 이 수업시간대가 빈다면 꼭 듣는걸 추천드립니다.</p> <p>Strategic decisions</p> <p>한국 경영학이랑 비슷할 줄 알고 신청한 과목인데 그냥 경제학 과목입니다. 함수쓰고 수학문제쓰는 경제수업.. 한국어로도 어려울 것 같은 수업이라 완벽하게 듣지는 못했습니다. 조별과제나 개인과제는 없고 오로지 시험으로 평가되는 과목입니다.</p> <p>Supply chain management</p> <p>마지막 시간대에 있는 수업입니다. 그만큼 많은 학생이 듣는 과목입니다. 조별과제와 개인과제가 있습니다. 개인과제는 일주에 한번씩 4번인가 내는데 양이 꽤 많아서 열심히 하셔야 다 낼 수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에 놀라고 첫주 오티만 진행하는 수업이라 첫 수업하고 이후는 수업없이 과제로 대체해서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p>
프로그램 운영	<p><i>외국인 학생을 위한 지원현황</i></p> <p><i>예) 오리엔테이션, 교환학생 참여 프로그램, 담당부서, 담당자명, 상담 프로그램 등</i></p> <p>처음 가게되면 ESN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한달정도 Fadder그룹과 여러 활동을 하게 됩니다. 간단한 체육대회도 하고, 일주에 한번 그룹끼리 만나서 저녁을 먹기도 하고, 주말마다 ESN끼리 클럽에 가거나 파티를 열기도 합니다. 페더그룹끼리 엄청 친한 그룹도 있고 아닌 그룹도 있으니 같은 그룹 친구가 안맞아도 상심하지 말고 다른 친구들 사귀면 됩니다..</p>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p><i>현지 기후 및 유의점</i></p> <p>8월 중순에 도착해서 반팔은 한달 정도 입고 이후로는 긴팔을 입고 다녔습니다. 10월부터 추워져서 가을옷을 꺼내입고 11월부터 롱패딩을 입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8,9월까지의 맑은날도 많고 날씨도 괜찮은데, 가을끝무렵~겨울부터는 흐린날이 많습니다. 겨울이 시작되면 해도 빠르게 저서 12월 18일 출국하기 직전에는 3시쯤 해가 졌습니다. 여름옷은 많이 가져가지 마시고 겨울옷도 한해 입고 버릴옷을 챙겨가시는게 편합니다. 시내에 뉴요커라는 옷가게가 싸고 괜찮은 옷들이 있어서 필요하면 현지에서 구매하는게 편합니다.</p>
안전	<p><i>현지 안전 상황</i></p> <p>해가 지고 나서도 혼자 시내 왔다갔다 할 정도로 안전합니다. 한국과 비슷합니다. 소매치기나 강도 인종차별 같은 어려움은 한번도 겪어보지 못했습니다.</p>
숙소	<p><i>학교기숙사(O) 홈스테이 () 외부 숙소() 기타()</i> <i>기숙사 이름, 숙소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숙소 전반에 대한 평가</i></p> <p>학교 기숙사는 Studentgatan이라고 부르고, 한 층에 두개의 코리도로 나뉘어져있습니다. 한 코리도에 7명정도가 살고, 부엌만 공유하는 개인실입니다. 부엌이 없는 한국의 원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룸메가 없어서 개인시간이 많지만 그만큼 현지학생들과 친해지는것은 전적으로 본인의 몫입니다. 룸메이트로 자연스럽게 친해질 방법이 없으니 현지 친구를 만드려면 본인이 많이 노력하셔야 합니다.</p> <p>부엌은 일주마다 한명씩 돌아가면서 청소를 하는데 가끔 어떤 코리도는 자율로 하는 경우가 있으니 상황보고 하시면 됩니다.</p>

<p>식사</p>	<p>학교 Meal Plan () 학교식당 개별이용 () 홈스테이 () 외부식당 () 직접 요리 (O) 기타 () 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p> <p>근처에 식당도 많지 않아서 주로 해먹거나 한국에서 받은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카에 쌀도 팔고 삼겹살 고기나 보쌈용 고기 등을 팔아서 여러 요리들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 라면이랑 캔을 가져가면 큰 도움이 되니 챙겨가세요! 참고로 차이나 마트에 김치, 짜파게티, 신라면, 가끔 불닭도 파니 들고가지 마세요. 한국 캔 종류나 진라면은 없어서 한국에서 받았습니니다.</p> <p>그 외에는 학교 안에 파스타 가게, 커리집, 케밥집이 있어서 가끔 그곳에서 식사를 해결했습니다.</p>
<p>교통</p>	<p>통학방법, 시내교통, 주요도시 이동 관련</p> <p>-스톡홀름에서 학교까지</p> <p>아마 학교측에서 이메일로 학교로 올 수 있는 방법을 보내줄 텐데, 제 기억엔 공항에서 학교까지 가는 방법을 기차를 타고 가는 방법만 안내해줬던 것 같습니다. 공항에서 orebro까지 가는 버스는 SWEBUS나 NETTbus가 있으니 알란다 공항에서 Orebro recentrum으로 가는 버스를 타시면 됩니다. 저는 처음 학교로 갈 때는 기차를 타고, 나중에는 여행때마다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가 기차보다 100크로나 정도 더 저렴해서 버스만 타고 다녔습니다.</p> <p>Orebro recentrum에 내리면 2,3,9 번을 타고 학교로 갈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안내해주는 이메일에 정확한 버스 번호가 있을 테니 꼭 확인하세요! 이 버스들은 나중에 시내 나갈 때도 자주 타는 버스라 금방 익숙해집니다. 스웨덴 버스는 전부 턱이 낮아서 큰 캐리어도 그냥 들고 탈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타 셔도 됩니다.</p> <p>시내에 나갈 때는 보통 버스를 타고 나가는데, 버스카드를 구입하거나 orebro버스앱을 설치해두면 어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앱을 쓸 때는 탈 때 버스기사님께 보여드리고 타면 됩니다. 3시간까지 환승이 가능하고 한번 탈 때 18크로나씩 결제했었습니다. 참고로 vuxen이 성인이란 뜻이니 버스카드를 쓰실 땐 찍고 타실 때 기계에 북센버튼을 누르고 카드를 찍고 타시면 됩니다.</p> <p>이 외에는 자전거를 타고 보통 다니는데, 저는 한학기동안 그냥 걸어 다니거나 버스를 타고 다녔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자전거를 많이 타고</p>

	다니니 출발 전에 페이스북에 Orebro 장터 그룹에 가입해서 둘러보고 가세요! 페더그룹끼리 놀러다닐때도 자전거를 많이 써서 있으면 편합니다ㅎㅎ..
--	--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 원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편도80만원X2	에미레이트 이코노미
Fees	교환학생 파견 시 Tuition의 경우, 양교 협약에 의해 면제가 됩니다. 학교별로 Tuition 이외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상이한데 본인이 지출한 금액에 대해 상세히 적어주세요. 예) University Support Fee, \$3,000 따로 내야하는 금액은 없었습니다.	
보험료	자매대학에서 권하는 보험을 샀는지, 국내에서 해외 여행자 보험을 사갔는지 여부 및 보험 비용을 알려주세요. 10개월- 24만원 정도	어서스트 카드 유학생 보험-
숙소	한학기 240만원	
식비	한달 30만원	
교통비	1회 18크로나	
책값	X	
기타1	기타 생활비 10~30만원	
기타2	개인 여행 300만원	파리-런던-암스테르담 여행~비행기 왕복 30, 숙박포함 총경비 200 키루나 여행 총경비 70
합계	1000만원.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 미리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
(분량 자유)*

거주허가증은 입학허가서가 나오는대로 바로 신청하세요! 영문서류 댈 때 모든 항목이 영어로 되어있는지 잘 체크하시구요. 네이버에 신청 과정을 자세하게 써둔 글이 있으니 참고하면서 쓰세요.

옷은 일년 입고 버릴옷만 챙겨가는게 좋습니다. 나머지는 현지에서 살 수 있어요. H&M도 있고 다른 옷 살곳 꽤 있습니다.

환전은 많이 안해가셔도 괜찮습니다. 하나 비바카드 발급받으시고 현지에서 인출해서 쓰세요. 참고로 스웨덴에서 카드 쓰려면 여권이나 거주허가증이 꼭 있어야합니다.

여가 시간이 정말 많이 남아요. 가기전에 비는 시간 어떻게 지낼지 한번쯤 생각해두시고 가길 추천해드려요.

처음 도착하면 침대에는 매트리스만 있고 이불이 없습니다.. 보통 이케아 가서 사거나 이전 교환학생한테 받는데 그 사이에 하루이틀 덮을것이 없으면 조금 추워요ㅠㅠ.. 얇은 담요나 두꺼운 잠옷 하나 챙겨가세요!

스웨덴은 욕실화를 따로 팔지 않는 것 같아요. 맨발로 들어가도 상관없다면 괜찮지만 필요하신분은 하나 미리 챙겨가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스웨덴 식료품 물가는 한국보다 저렴하거나 비슷한 수준인데, 공책, 볼펜, 케이블 같은 물건들이 많이 비싸서 하나 살 때 부담이 꽤 큼니다.. 특히 핸드폰 케이블 같은 것들은 미리 몇 개 가져가세요. 다이소처럼 싸게 물건을 파는 곳이 없습니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분량 자유)

귀국후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여행입니다. 거주허가증으로 무료입장 가능한곳이 많아서 기대하지 못했던 장소들도 다녀올 수 있었어요.

한학기만 다녀왔기 때문에 출국전에 기대 했던 것처럼 영어를 유창하게 쓴다던가 여러 외국인 친구를 사귀다던가 하는 것들은 이루지 못했지만, 영어를 쓸 때의 어려움이나 외국인을 대할 때 어색함은 없애고 올 수 있었습니다. 여행 동안 낯선 장소를 다니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되었어요. 한학기동안 남는 시간에 보통 귀국후의 일을 계획해봤었는데, 덕분에 귀국후에도 큰 시간낭비없이 해야 할 일을 하나씩 해내고 있습니다. 교환 생활뿐만 아니라 교환학생을 준비하던 과정들이 전부 지금 준비하는 일에 도움이 되고있어서 교환준비 과정과 교환학생 생활 모두가 유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기숙사 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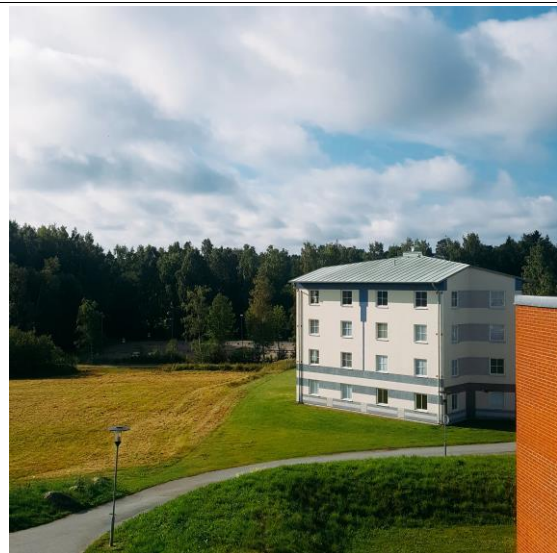
노바-주로 조별과제 할 때 모이는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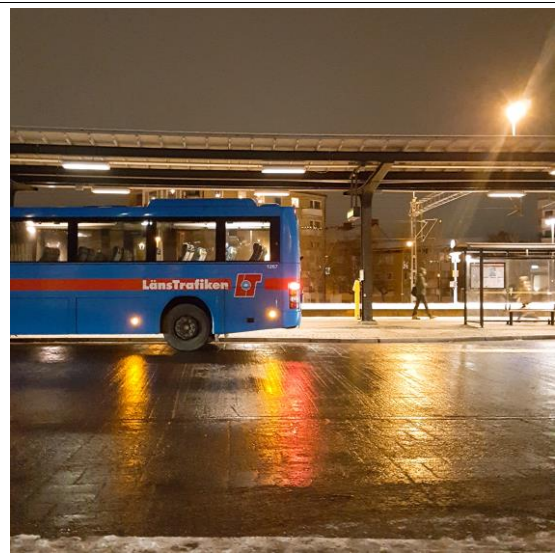
노바 내부



시내 Orebro 성



기숙사 뒷편



Orebro 정류장